

보살의 길

2007년 겨울호 제32호



2007년 12월 13일 후원자·자원봉사송년모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戊子년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세요



박재근(현성) 원장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 해가 지나는 선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감상에 젖습니다.

비록 지난해의 여운이 우리를 아쉽고 후회스럽도록 해도 돌아오는 아침의 희망의 빛을 맞이하여 못다 한 일에 열성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내년은 戊子년 쥐띠 해입니다. 60간지(干支) 중 쥐띠 해는 갑자, 병자, 경자, 임자, 무자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자년 쥐띠는 "멧밭쥐"에 속한다고 역술가들은 말합니다.

멧밭쥐는 숲 속에서 식물, 곤충, 곡물 등을 먹고사는 온순한 쥐입니다. 쥐띠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근면, 절약정신과 인내심 강한 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꿈속에서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으면 큰 행운을 암시한다는 해몽법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쥐띠의 좋은 점을 마음에 담아 우리 사회가 큰 행운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후원자님!

한 해 동안 후원해주시고 자원봉사로 성원해 주시어 여기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기부문화가 정착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원봉사는 원하는 어느 곳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봉사를 원하는 곳은 많으나 아직도 자원봉사단체의 의욕을 매개해줄 체계가 미흡하여 원활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체계가 이루어져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三日修心은 千載寶요 百年食物은 一朝塵이다.

즉,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재물을 쌓는 것도 악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만분의 일이 라도 재물을 쓴다면 곧 그것은 수심(修心)입니다. 새해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수심(修心)을 펼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원자님! 재삼 감사드리며 戊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2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랑 같이 놀아요!”

대한불교청소년
교회연합회

혜명양로원에 방문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함께한 즐거웠던 11월 11일은 내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던 하루였다. 조금은 잠이 덜 깬 상태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혜명양로원으로 향하였던 나의 첫 발걸음은 조금은 고된 발걸음이었지만 양로원에 도착하여 이번봉사활동에 참가해주신 안과 선생님들과 소술암 주지 스님 혜문스님, 그린비 친구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던 나의 발걸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냥 흥겹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변하였다.

처음엔 서먹서먹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된 듯 함께 웃으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소술암 주지 혜문스님께서 하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절로 어깨춤을 추시는 모습과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신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너무 짧은 시간을 함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 헤어질 시간이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보니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셨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진 못했지만, 잠깐의 시간동안 정이 들어 헤어지는 내내 아쉬움이 가득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봉사활동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곁에서 항상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의 복무지

혜·명·양·조·원



김준영 공익근무요원

공익생활을 한지 어느덧 2년이 넘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음 4주 훈련을 마치고 양로원에 왔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겹고 심심하고 언제 집에 갈까 이 생각뿐이 었다. 해가 짧은 겨울이라서 그랬는지 하루를 양로원에서 다 보내는 느낌도 들고, 혼자여서 그런지 더욱 심심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2달여간은 투덜거리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부터인지 몰라도 생활이 익숙해져하는 일도 편했고 어느 땐 보람찬 하루라고 느껴 질 때도 있었다.

아마도 양로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관리과장님의 배려의 결과가 아니 었나 생각한다.

양로원에 있으면 관리과장님과 가장 많이 일을 한다. 양로원 구석구석 망가지고 부서진 곳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관리과장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항상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쳐 주시려고 신경써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양로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대해주신다. 인사하면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우리할머니같이 자상하시다.


언제인가 할머니 한분을 모시고 가까운 병원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걷기가 많이 불편하여 조금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를 반복하면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고 양로원으로

오는 길에 더 이상 걷기가 힘들다고 주저 앉으셨다. 그런데 그날은 날도 엄청 춥고 바람도 차가웠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엮고 양로원으로 오는데 할머니께서 무겁진 않냐고 오는데 물어보시며 미안해 하셨다. 양로원에 도착해선 내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슬픈일이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목욕을 시켜드리는 할아버지 한분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코끝이 찡했다.

장례를 치르는것도 그날 처음 봤다. 조금은 낯설고 무서웠지만 그동안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이처럼 2년여간의 공익생활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이 었고 인생에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양로원의 공익생활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진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윗사람을 공경 할 줄 알고 좀더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살게 될 거란 생각은 든다.

마지막으로 양로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준영 공익근무요원은 2006년 1월 2일 복무를 시작하여 2008년 2월 1일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혜명한마당



| 요보호어르신 |

10월24일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어르신들만 모시고 안양예술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청국장으로 외식을 하고 단풍이 한창인 도로를 달려 오후 일정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 청소년교외연합회 |

11월11일 청소년교외연합회에서 자원봉사를 나왔습니다. 사무총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나와 오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고 오후엔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댄스로 어른들께 행복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 물리치료 |

매주 수요일이며 어른들이 저녁을 드시고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퇴근하시고 봉사를 해주시는 조기환선생님께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앞다투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직장생활도 힘들던데 특별히 성실한 모습으로 봉사를 나오시는 조기환선생님께 힘찬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혜명복지원 체육대회 |

도선사의 혜명복지원 법인산하 19개 시설이 평택의 청담고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서로 지역도 다르고 하는일도 다르지만 이날만은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종이접기 |

매주 수요일엔 요보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권연숙선생님의 종이접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이 닿을때 마다 예쁜 작품이 하나씩 똑딱 생겨 어른들이 재미나게 종이접기를 하고 계십니다. 늘 더 좋은 것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 오시는 종이접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음은 처음 즐거운 운동회 |

10월31일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과 양로원 마당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달리고, 먼지고, 차고 하시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기려 열심히 팔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양로원이 완패를 하고 말았지만 양로원어르신들은 손님에게 이기면 안 된다고 하시며 여유를 보여 모두 웃었습니다.



| 자원봉사·후원자송년모임 |

12월13일 자원봉사 후원자 송년모임을 했습니다. 원장님말씀과, 감사장전달, 사진으로 보는 혜명양로원 1년, 웃음치료, 양로원에서 만든 뷔페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와 후원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새해 소원성취하세요.



| 안과검진 |

11월24일 독산동에 있는 서울안과에서 검진을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검진으로 검진도하고 약도 제공해주어 어르신들께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 혜명양로원 송년회 |

12월27일 어르신과 직원들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한해동안 원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한 남·녀어르신에게 상장을 전달했으며 어르신과 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레크레이션과 뷔페 식사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무탈하게 지냈기에 감사드리고 무자녀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혜명동점

시/설/개/요

- 시 설 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 원 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 근 (현성 큰스님)
- 정 원 : 64명 (남: 28명/ 여: 36명)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상당 및 신청)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당 및 입소결정)

▶ 어르신입소현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계	61	7	9	11	15	15	4	2
남	26	5	7	6	6	2	·	·
여	35	1	2	5	8	13	4	2

▶ 직원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무장	관리과장	간호사	영양사	서무	생활지도원	위생원	식당	사회복지사
남	4	1	1	1				1			
여	12				1	1	1	4	1	3	1
인원	16	1	1	1	1	1	1	5	1	3	1

2007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2007년 7월~12월)

수 입		지 출	
후원금종류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지역사회 후원금품	21,510,629	사무비	3,099,185
		사업비	2,240,250
		프로그램 사업비	1,988,120
합 계	21,510,629	합 계	7,327,555

자원봉사자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공경진, 장영숙, 김아영, 신경숙, 김정아(f.g.t.g),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 이정순, 고병남, 강은향, 김명선, 박은주, 민경숙, 윤숙녀, 이양수, 안정희(밀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 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 권연숙(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 모임 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사 시흥동 회원님들,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 신도님들, 천종입(경기민요), 최승묵, 김병오, 김용기, 박정근, 양희충, 유문식, 김진환(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김하늘(차밍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묵향,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찬불가 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명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입, 마정입(반야회), 김순옥(식당봉사),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전광원(목욕봉사), 조장현, 송백섭, 김운봉, 김민석, 이교환, 조영관(기업은행 강서지역), 김도연(이야기시간), 홍덕신, 채명훈, 장진하, 위진영, 신수진, 김도진, 강선권, 송한별, 송예슬, 박가현, 박지현, 김혜미, 권지현, 유재운, 신수정, 신수진, 홍은지, 권지연, 박윤미, 이원근(금강정사 학생회)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 물 품 후 원

보명사신도, 공동모금회, 금천푸드뱅크, sj일레콤, 서서울과학교, 대영정공, 오픈텔레콤, 신티에스, 사랑의 운동본부, 박월서, 독지가, 입소자 가족들, 문성 초등학교, 인천보살님, 삼진섬유, 반야회1기, 기업은행, 박혜정, 보명사, 전국학교 어머니회, 우리은행, 김규성, 양재희보살, 금천도서관, 청소년 교화연합회, 해명보육원, 국승우, KT & G, 백련사, 능인선원, 이윤분, 해명회, 공동모금회, 금천구청, 이재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청와대, 박내순, 최경애

♥ 지 로 후 원

윤재순 120,000 백승풍 30,000 안정희 30,000 구봉순 40,000 은선사 30,000 문금자 40,000
이정호 5,000 서현종 40,000 이애자 20,000 유원조 10,000 박영옥 10,000 김기영 300,000
박세진 10,000

♥ 현 금 후 원

한국노인복지협의회 76,50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1,000,000 KBS 강태원 복지재단 200,000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00,000 이정자 100,000 박성수 12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200,000 최정규 631,726 마희전 80,000 김지현 100,000 조성한 40,000
한진택 300,000 양보금 20,000 유규동 40,000 박혜정 30,000 안효주 200,000
보명사 200,000 이복례 500,000 푸른금천 100,000 금천구청 40,000 백련사 500,000
박월서 100,000 박유나 80,000 제임스텍상조회 500,000 KB 부동산신탁 2500,000
청담어린이집 50,000 서권순 50,000 한태규 100,000 이복자 20,000 안양교도소 300,000

♥♥♥ 늘 양로원을 잊지 않고 정성껏 후원금을 내주시는 후원자님, 어르신들의 생필품, 간식, 부식등 후원품을 가져다 주시는 후원자님, 또 하루 일과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자원봉사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두루 건강하고 화목하시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 시흥역 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 구로디지털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

발행처 : 사외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